

다윗 이야기

③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나 레 이 셴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같이 큰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 리 앳 이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누구든지 나오너라! 나랑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순순히 물러가주마! 왜 아무도 안 나오냐? 겁먹은 너희 꼴들을 보아하니 너희 하나님도 겁먹었나보구나! 하하하! 겁쟁이 하나님과 겁쟁이 백성들이구만! 하하하!

나 레 이 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골리앗의 큰 덩치와 힘을 보고는 기가 꺾어버려서, 누구도 앞으로 나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나 레 이 셴 바로 거기, 바로 거기, 바로 거기~~~~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온 다윗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윳 뭐야? 저 덩치 큰 고깃덩어리는...

골 리 앳 너희 겁쟁이 이스라엘아! 어서 나오너라... 이 쥐새끼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도망 갔나보구나! 너희 신은 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구! 하하 하하하하!

다 윳 와 나... 와 나...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감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군 인 1 야야 애야... 너 같은 어린애가 지금 뭐하는 거야! 어서 돌아가라!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래... 어서 집에 가!

다 윳 아니! 지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군 인 2 야야~~ 넌 눈이 멀었니? 저 골리앗, 저 큰 거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아서라 다친다. 쓸데없는 소리말고 냉큼 돌아가거라.

다 윳 저는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공격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셨으니 저 거인 같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나 레 이 셴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있었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
다. 그저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조약돌 5개만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더니
블레셋 군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겁도 없이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골 리 앳 앵? 이 꼬맹이는 뭐야? 아가야 어서 돌아가라! 계집애 같이
어린놈을 보내는 너희 군대와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놈들이구나!
어서 꺼지지 못해~!!

다 윳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너에게 간다. 너는 오늘 나에게 패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골 리 앳 뭐얏? 이놈이...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그를 믿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오냐 내가 너를 한 방에 죽여주마!

.....

나 레 이 셴 그러자 다윗은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돌을 물매에 매어 힘껏 던졌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골 리 앳 악!

나 레 이 셴 그 큰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는 겁에 질려버렸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가 크게 생기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큰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